

배포 2025. 1. 16.(목) 08:30

보도시점

(인터넷) 2025. 1. 16.(목) 12:00

(지면) 2025. 1. 17.(금) 조간

2025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 기초 문해능력 온라인 자가진단 서비스 신규 운영
- 기초·디지털뿐만 아니라 일상 속 가정·여가·공공·경제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 문해교육 프로그램' 신규 공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월 17일(금) '2025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낮은 문해능력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문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디지털에 대한 이해·활용 등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난해까지 약 81만 명(누적)에게 문해교육을 지원하였다.

2024년부터는 신체·지리적 여건으로 문해교육 접근성이 낮은 비문해·저학력 성인을 위해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한글햇살버스"(2024년 서울·전북·제주 실시)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 2024년 대비 2025년 달라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

구분	'24년	'25년
국고 예산	67.32억원	70.44억원
문해교육 프로그램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한글햇살버스" 도입	생활 문해교육 프로그램 신설, "한글햇살버스" 확대
디지털 문해교육 기반 구축	디지털 시범수업·실습 운영	디지털 현장실습 본격 도입
데이터 기반 문해교육	제1차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 실시 기초 문해능력 자가진단 개발	제1차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 결과 공표(9월), 기초 문해능력 자가진단 정식 운영

< 2025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중점 추진 방향>

①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 결과 공표 및 문해능력 자가진단 서비스 운영

우리나라 18세 이상 성인의 전반적인 디지털 문해능력 수준을 측정하고, 통계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위해 제1차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 결과를 공표한다(2025.9월 예정). 본 조사는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성인 10,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성인의 디지털 문해능력을 수준별*로 구분하여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 * 수준1: 디지털에 대한 이해·경험이 부족하거나,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조작이 어려움
- 수준2: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조작이 가능하나 일상생활 활용에 미흡
- 수준3: 디지털 기기·기술을 활용하여 일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비판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부족
- 수준4: 디지털 기기·기술을 능숙하게 활용하여 다양한 문제를 원활히 해결

또한, 2025년 2월부터 국가문해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기초 문해능력 자가진단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 본 서비스는 성인 누구나 자신의 기초 문해능력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문해능력을 진단하면 응답자의 문해력 수준*을 알려주고, 수준에 맞는 학습자료와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 (참여 방법) 국가문해교육센터 누리집 접속(le.or.kr) → “기초문해능력 자가진단” → 기초문해능력 자가진단 참여하기

- * 수준1: 기본적인 읽기·쓰기·셈하기 불가능
- 수준2: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가 가능하지만 일상생활 활용 미흡
- 수준3: 단순한 일상활용은 가능하나 공공 및 경제생활 등 복잡한 일상활용 미흡
- 수준4: 일상생활 문제해결에 필요한 문해능력이 있으나 고도의 정보처리 능력은 부족
- 수준4+: 수준4 이상의 문해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고도의 정보처리를 할 수 있는 수준

② 생활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한글햇살버스” 확대

올해부터는 기초·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건강·안전 등 일상 속 가정·여가·공공·경제 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생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한다. 이를 통해, 비문해·저학력 성인 학습자는 금융·교통·건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지식과 정보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 ※ (생활 문해교육 영역 예시) ① 가정·여가생활(건강, 생활과학(뷰티), 문화, 생활안전 등), ② 공공생활(교통, 투표 등), ③경제생활(금융, 생활수학(계약서, 고지서) 등)

또한, 현장에서의 호응이 높았던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한글햇살 버스” 운영을 확대(시도문해교육센터 3개소→5개소 내외)한다. 기존 문해교육 참여가 어려웠던 학습자도 “한글햇살버스”를 통해 거주지 내 복지관 등에서 무인안내기(키오스크)나 스마트폰 배달앱을 활용한 음식 주문 등 디지털 기기·기술 활용 방법을 배울 수 있다.

③ 디지털 문해교육 현장실습 본격 도입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기기·기술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현장실습도 본격 도입된다.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은행, 매장 등 학습장을 확보하고 다양한 현장실습과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 (2024년 현장실습 사례) 하나은행, 맥도날드와 협업하여 은행, 영업장 등에서 에이티엠(ATM) 활용법, 무인 안내기(키오스크) 이용법 등 지원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배움을 이어나가는 성인 학습자분들께 응원과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도 디지털·금융·건강 문해 등 문해교육 영역을 지속 확대하고, 문해교육이 필요한 대상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5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개요 및 주요 현황통계

- 【별첨】 1. 2025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
2. 2025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공고문

담당 부서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	책임자	과 장	이진영 (044-203-6383)
		담당자	사무관	김보현 (044-203-6384)
			주무관	김유진 (044-203-6385)
담당 부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문해교육센터	책임자	센터장	서영아 (02-3780-9752)
		담당자	센터원	이준섭 (02-3780-9759)



붙임

2025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개요 및 주요 통계

□ '25년 사업개요

구분	내용
예산	○ '25년 총 70.44억원
추진목적	○ 교육기회를 놓친 비·저문해 성인 대상 문해교육 지원 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 및 평생학습 사회 구현
주요내용	○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5,500백만원) ※ 전국 단위 공모(1월~4월)를 거쳐 문해교육기관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 ○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 및 디지털 문해교육 기반 구축(1,074백만원) ※ 온라인 콘텐츠 제작, 교과서 보급, 문해교육 교원 및 관계자 역량 강화 ○ 디지털 및 일반 성인문해능력조사(200백만원) ※ 제1차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 결과 발표, 제5차 성인문해능력조사 도구 개선 및 예비조사 등 ○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 및 범부처·민간 협력 강화(270백만원) ※ 문해의 달 기념행사, 시화전, 민간 협력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향후일정	○ 기본계획 수립(1월) → 프로그램 지원 신청 공고(~2월) → 선정 및 지원금 교부(~4월) → 문해의 달 기념행사 진행(9월~) → 현장실습 지원, 콘텐츠 개발·보급 및 각종 홍보활동 추진(~12월)

□ 주요 현황통계(제4차 성인문해능력조사 결과('23))

- 일상생활에 필요한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18세 이상 성인 인구는 약 146만 명으로 전체 성인인구의 3.3% 해당

구분	수준 정의	비율(%)	추정인구(명)
수준 1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수준 (초등 1~2학년 학습 필요 수준)	3.3	1,460천명
수준 2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는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활용은 미흡한 수준 (초등 3~6학년 학습 필요 수준)	5.2	2,313천명
수준 3	가정 및 여가생활 등 단순한 일상생활에 활용은 가능하지만, 공공 및 경제생활 등 복잡한 일상생활에 활용은 미흡한 수준 (중학 1~3학년 학습 필요 수준)	8.1	3,584천명
수준 4 이상	일상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문해능력을 갖춘 수준 (중학 학력 이상 수준)	83.4	36,887천명
전체		100.0	44,245천명

※ 제4차 성인문해능력조사('23) 결과(통계청 국가승인통계), 추정인구는 반올림